



‘대만기 논란’ 쓰위 “국내 예정된 일정 소화”



국내 방송에서 대만기를 흔들었다는 이유로 중국에서 ‘대만 독립운동자’란 비난에 휩싸인 걸그룹 ‘트와이스’의 대만 멤버 쓰위(周子瑜·17·사진)가 예정된 한국 일정을 소화한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18일 “쓰위가 오늘 고양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되는 MBC 설특집 ‘2016 아이돌스타 육상 풋살 양궁 선수권대회’(아육대) 녹화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쓰위는 이미 중국 활동 중단은 발표했다지만 트와이스로 예정된 국내 스케줄은 소화한다는 입장이다. JYP는 “중국 활동은 이미 중단했으며 트와이스의 해외 일정은 현재로서는 예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JYP는 또 쓰위가 지난 15일 밤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와 JYP엔터테인먼트 유튜브 채널에 올린 사과 영상과 관련해 “강요한 사과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공식 입장문을 통해 “쓰위가 미성년자이므로 (입장 발표는) 처음부터 부모님과 상의했고 회사는 부모님이 한국에 들어오실 때까지 기다렸다”며 “쓰위의 부모님이 한국에서 쓰위와 함께 상의한 후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JYP는 “한 개인의 신념은 회사가 강요할 수도, 해서도 안되는 일”이라며 “이와 같은 일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쓰위가 열심히 활동하는 만큼 쓰위 부모님은 이 일이 어서 진정 되길 바라는 마음이고, 쓰위를 응원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씀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쓰위는 영상에서 “중국인으로 해외 활동을 하면서 발언과 행동의 실수로 인해 회사, 양안(중국과 대만) 누리꾼에 상처를 드린 점에 매우 죄송하다”며 “중국은 하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누리꾼 사이에서는 소속사가 미성년자인 쓰위에게 사과를 강요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고, 다문화 단체(대한국다문화센터는 성명을 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해 쓰위의 사죄가 강요에 의한 것인지 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만에 사는 쓰위의 어머니는 대만 총통 선거와 맞물려 사태가 심각해져 딸이 걱정돼 지난 15일 한국을 방문했다. 쓰위는 멤버들과 숙소에서 살고 있지만 주말 동안 어머니와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장나라·유인나·정경호 등 출연

MBC 새 수목극 내일 첫 방영

연애도 할 만큼 해봤고 결혼도, 이혼도 해봤다. 그런데 아직도 사랑을 모르겠다.

오는 20일 첫 방송하는 MBC TV 새 수목드라마 ‘한번 더 해피엔딩’은 다시 한 번 행복해지려 하는,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30대를 위한 연애 지침서다.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 같았던 왕자와 공주가 결국은 ‘셋 중 하나’ 이혼 딱지를 붙이는 그저 그런 부부가 되고 마는 현실에서 ‘돌돌살’이 되지 않으려면 처음과는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30대의 솔직한 이야기를 발칙하고 솔직하게 전한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10여년전 걸그룹 ‘엔젤스’로 화려한 연예계 생활을 했던 4명의 30대 여성이다.

장나라는 전직 걸그룹 ‘엔젤스’의 멤버로, 현재는 재혼컨

설파업체 ‘용감한 웨딩’의 공동대표 한미모 역을 맡았다.

26세에 결혼해 3년만에 이혼을 통보 당했다. 이후 8명의 남자를 짝고 굶게 만나 못다한 열애흔을 불태웠지만 이제는 다시 결혼이 하고 싶어졌다.

한미모와 함께 ‘엔젤스’로 활동했던 고동미(유인나 분), 백다정(유다인), 홍애란(서인영)은 화려한 과거가 언제 있었느냐는 듯 각자의 삶을 지열하게, 저절하게 살아간다. 네 사람이 만나 나누는 경제적인 고민, 스킨십 이야기 등 30대 여성의 현실적인 고민들이 이 드라마의 성격을 보여준다.

장나라는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삼양 MBC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어릴 땐 지금의 내 나이가 되면 세상을 다 알고 사랑도 확실하게 알고 짝도 있을 줄 알았다”며 “극중 미모가 결혼도, 이혼도 해봤지만 아직도 사랑을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는 점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가수로도 활동하기도 한 장나라

는 이번 드라마에서 아이들의 모습을 선보인다.

장나라는 “무대 장면을 찍는데 관객이 너무 많아서 처음에는 긴장을 많이 하기도 했다”며 “제 나이에는 경험하기 힘든 장면이어서 죄송스럽기도 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산뜻한 기분이었다”며 웃었다.

정경호는 초등학생 아들을 둔 싱글맘 송수혁을, 권율은 독특한 성격의 신경과 의사 구해준을 맡았다. 두 사람은 절친한 친구 사이로 한미모를 놓고 팽팽한 경쟁을 펼친다.

연출을 맡은 권성장 PD는 “단순한 청춘 남녀의 멜로가 아닌 현실적인 고민이 많이 녹아있는 드라마”라면서 “무거워지지 않게 코믹적인 요소를 가미하면서도 주제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밸런스를 맞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룹 2NE1의 산다라박이 한미모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엔젤스’의 멤버로, 유일하게 톱스타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구슬이 역으로 특별출연한다.

TV 프로그램

1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토크쇼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일도 승리)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제 끝판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아침연속극 (내 사위의 여자)
9 00 신문이야기 들춰주 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인사이드	00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 신년 기자회견 2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50 KBC 생활뉴스
11 30 이제 만나러 갑니다	05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00 월화드라마 (우림학교)(재)	00 그린실버 고향이 좋다	10 닥터 365(재) 15 글로벌 문화유산 50 SBS 12 뉴스
12 40 채널A 뉴스특보	00 KBS 뉴스12	05 생생정보 스페셜	00 MBC 정오뉴스 20 TV속의 TV	45 닥터 365 55 특목보통설계
1 50 뉴스특급	00 역사저널 그날(재) 50 별빛가족(재)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00 시간을 달리는 TV(재)	20 문화사색(재)	
2	00 세상을 바꾸는 뉴스사용 설명서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	05 내꺼야 풀록 30 푸리가 식사교실	00 영재 발굴단(재)
3 00 이연경의 직언직설	05 겹쳐서 세계속으로(재) 55 토크생방송	05 후투스 읽어버린 숲(재) 30 자동차부품상 위키	00 MBC 뉴스 10 토크? 토크? 토크 55 아빠 어릴 적엔	00 3시, 뉴스브리핑
4 30 쾌도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세계인 스페셜 20 TV, 책을 보다(재)	00 TV유치원 30 이우정PD의 요리인류 키친(재) 40 동물의 세계	2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재)	0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스페셜 30 고교 디아노
5 50 김승연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VJ특공대(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내 마음의 크레파스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365 15 KBC 생방송 투데이
7 10 나는 몸신이다(재)	00 KBS 뉴스7 30 KBS목표 신년 특별대담	50 일일드라마 (다 잘될거야)	15 일일연속극 (최고의 연인)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터치 때때부파 20 일일드라마 (마녀의 성)
8 20 갈데까지 가보자(재)	25 우리집 골단지	30 2TV 생생정보 플러스 55 1대100	5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스타킹
9 4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50 채널A 스포츠뉴스	00 시사기획 창 55 숨터	00 월화 드라마 (우림학교)	00 월화특별기획 (화려한 유혹)	00 청사 25주년 특별기획 (육룡이 나르샤)
11 00 충격 실화극 싸인(재)	00 KBS 뉴스라인 40 양글라의 잊혀진 부족들	10 우리동네 예능쇼	10 PD수첩	15 불타는 청춘
12 30 개방주는남자(재)	35 독립영화관 (술/천상의 피조물)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05 MBC 뉴스24 15 능력자들 스페셜	35 나이트 라인

EBS 1

05:00 EBSe 생활영어	09:40 토크쇼 부모 (이슈 N 맘)	14:40 초등 3학년 EBS 겨울방학생활	19:30 EBS뉴스
05:30 건강안심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5:00 꼬마 철학자 유고	19:50 극한직업
05:40 성공 인생후반전	제육콩나물찌개와 어묵콩나물찌개	15:15 꼬마가시 마이크	20:40 다큐 오늘
06:10 EBS 인문학 특강(재)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30 세계사 시간여행	20:50 세계테마기행
07:00 레이디 버그	11:10 다큐 오늘	15:40 모피와 친구들	<황금빛 미소의 땅, 미얀마>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1:20 세계테마기행(재)	15:50 크레앙의 창의력 팽팡(재)	21:30 한국기행
07:45 로보카 폴리	12:00 EBS 정오 뉴스	16:30 코코코 다코(재)	<발품팔아 오지기행>
08:00 땡땡땡 유치원 1	12:10 EBS 스페이스 공감	16:45 땡땡땡 유치원1~3(재)	21:50 EBS 다큐프라임
08:05 Why - 최고! 호기심따지	13:05 지식채널e	17:30 뽀롱뽀롱 뽀로로	<녹색동물>
08:20 땡땡땡 유치원 2	13:10 프레임 인	17:45 로보카 폴리	22:45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08:30 두다다큐	13:40 즐거운 수학 EBS MATH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3	<필리핀 교도소 이완희 이야기>
08:40 땡땡땡 유치원 3	13:50 오스카의 오아시스	18:45 신동방통 공룡 슈퍼	23:35 프레임 인
08:45 코코코 다코	14:00 초등 1학년 EBS 겨울방학생활	18:55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4	24:05 지식채널e(재)
09:00 크레앙의 창의력 팽팡	14:20 초등 5학년 EBS 겨울방학생활	19:00 레이디 버그(재)	24:10 EBS 인문학 특강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19일(음 12월 10일 庚子)

子	48년생 결과로 인한 파급 효과까지 감안한 후에 실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본다. 60년생 시일을 두고 진지하게 고민한 후에 방안을 모색하자. 72년생 필연적인 형국이나, 84년생 기본에 충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36, 90	午	42년생 과잉 반응을 보일 필요까지는 없다. 54년생 자세히 들 어다보면 미흡한 점이 보일 것이다. 66년생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78년생 주관적인 사고에 갇혀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 볼 일이다. 행운의 숫자 : 12, 25
丑	49년생 매끄럽지 못하니 털이 나지 않게 하라. 61년생 의외의 돌발적인 변수가 생길 수도 있음을 감안하는 것이 적절하다. 73년생 요건은 되지만 추진 동력이 약하다. 85년생 실추적인 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75, 37	未	43년생 점점 활기를 띠면서 운로가 왕성해진다. 55년생 주변의 성곡에 의해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리라. 67년생 이제 첫수고 는 그만 하는 것이 나으니 미련을 버려라. 79년생 요건이 풀 수 있는것을 찾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61, 79
寅	50년생 전혀 통하지 않을 것이니 아예 말도 꺼내지 마라. 62년생 귀인과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되는 날이다. 74년생 놓쳐서는 아니 될 일들이 보인다. 86년생 난해하다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처음 부터 다시 보자. 행운의 숫자 : 08, 41	申	44년생 중차대한 판공의 마당이나 빈틈이 없어야겠다. 56년생 지난날 언행 했던 바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날이다. 68년생 지난전 집착은 심신만 피곤하게 할 뿐이다. 80년생 생활에 결코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7, 01
卯	51년생 쌓아 놓은 공로로 인해 부가적 이익이 발생한다. 63년생 우려해 왔던 일이 현실화 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75년생 소관 사항이 아니라면 관여할 필요가 없다. 87년생 소원했던 관계가 회복되어 가는 양태이다. 행운의 숫자 : 20, 50	酉	45년생 수용한다면 길사로 연결되리라. 57년생 좀 더 넓은 범위 까지 인식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낫다. 69년생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항만을 우선 적용해야겠다. 81년생 기대했던 바는 물론 건너 가고 기쁨을 주는 이가 따로 있다. 행운의 숫자 : 46, 71
辰	40년생 노심초사하며 우려해 왔던 사건이 실제로 터지겠다. 52년생 일관성 있게 추진했을 때 효과가 크다. 64년생 확실하여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다. 76년생 관점을 달리해보자. 88년생 대조 해 보면 명명백백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3, 64	戌	46년생 유동성이 강하니 탄력적으로 대처해야겠다. 58년생 상대를 위하는 자세는 궁극적으로 자신을 위하는 길임을 깨닫게 되리라. 70년생 액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낫다. 82년생 공통적이어서 더불어 처리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16, 73
巳	41년생 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낫다. 53년생 현재는 하찮더라도 정례에는 요긴하게 쓰일 수 있겠다. 65년생 경험을 되살리다면 충분히 도약할 수 있다. 77년생 사회적 통념에 비춰보자. 89년생 대책을 강구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68, 34	亥	47년생 주된 일에 매진하다 보면 부수적인 사항은 자연히 해결 된다. 59년생 치밀하지 않으면 결산이 생길 수밖에 없다. 71년생 소관의 진전이지만 의미는 있다. 83년생 기존의 정황보다 훨씬 나은 쪽으로 변경되는 판국이다. 행운의 숫자 : 55, 93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